

2004년도 구비문학 분야 연구 동향

이인경(인제대)

1. 머리말
2. 연구영역과 문제의식의 전환·확대
3. 일반론, 작품론
4. 연행론(화자·청자론, 민속학적 접근)
5. 비교문학적 접근
6. 현대사회와 구비문학
7. 마무리

1. 머리말

이 글은 2004년 6월 이후부터 2005년 3월까지 이루어진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개관하기 위한 것이다. 늘 따라붙게 되는 고백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물을 한 명의 연구자가 한정된 시간 내에 빠짐없이 찾아서 검토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구비설화를 주로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다양한 분야의 구비문학 관련 연구물을 모두 정확히 이해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칫 무책임한 그리고 허다한 오독과 오판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개별 연구 논문에 대한 세밀한 비평을 지양하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개관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구비문학의 하위 갈래별로 나누어 연구 동향을 검토해오던 지금까지의 관례에서 벗어나, 여기서는 연구방법론 또는 연구시각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구비문학 연구가 과제로 삼고 있는

‘새로운 연구자료와 연구방법론의 개척’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연구동향 보고서가 1년 단위로 집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새로운 문제의식과 연구 성과물이 산출되었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다만 <참고문헌>란에 갈래별로 나누어 제시한 연구 성과물 목록을 통해 각 갈래별 연구동향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영역과 문제의식의 전환·확대

2003년 이후 구비문학회는 다양한 기획주제를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구비문학의 좌표를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고민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조동일은 전통구비문학에 대한 일방적인 애정을 버리고 현대 구비문학의 독자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연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는 대중문화 연구에 현대 구비문학론이 기여할 수 있도록 구비문학이 응용되고 상품화되는 양상과 방법을 연구할 것을 촉구하고, ‘구비문학’ 대신 ‘구비전승’이란 말을 사용하여 학문적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연구대상이 다른 것들과 얽혀있는 양상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연구 방법과 목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¹⁾ 한편 김열규는 민속문화 주체를 서민 또는 민중으로 보는 것에서 소비 균등인 대중으로 시각을 옮겨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구술문학이 문화콘텐츠로서 재창조되어야 하며 더불어 교포들의 민속문화와 공동체성을 한국 민속학의 중요한 과제로 포괄해야 함을 역설하였다.²⁾ 사실 조동일과 김열규의 이런 요청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구비문학 연구의 경향성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동안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을 총괄해본 결과, 이른바 구비문학 자료에 대한 전통적인 문학 텍스트 분석 방식을 보여주는 논문은 양적으로

1) 조동일, 「구비문학의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2) 김열규, 「구술 문학과 공동체 : 새로운 문제제기」,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상당한 열세에 놓여있다. 이른바 퓨전의 시대를 맞아서 구비문학 연구 역시 미술, 음악, 의례와 놀이문화와 같은 주변 영역과의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함으로써,³⁾ 구비전승 ‘문화’ 전반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구비문학 연구는 이제 ‘문학적 접근’을 넘어 ‘문화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런 사실은 특히 구비문학의 연행 문화적 속성과 현대 디지털 시대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에 주목한 연구 성과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⁴⁾

새로운 연구시각은 구비문학의 새로운 연구대상을 발굴해냄으로써 연구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대표적 예로 재담 그리고 만담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⁵⁾ 구비문학 속에 수용된 재담을 연구한 서대석은, ‘재담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문학 갈래를 설정한다면 재담은 설화의 하위갈래로서 서사적 국면을 구성하고 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드러내어 주제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면서, ‘소설이나 시가, 판소리나 민속극 등 모든 갈래의 문학작품에 두루 수용되어 있는 재담은 그 자체의 독자성도 있겠으나 작품의 대목이나 장면을 꾸미고 빛내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여러 문학 갈래를 넘나드는 ‘재담’ 그리고 ‘만담’은 전통적 구비문학 갈래론에 집착하는 연구시각 안에서는 좀처럼 주목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연구시각의 전환과 확대가 주는 효용을 새삼 절감하게 한다. 한편 재담에 대한 학계의 문제의식은 드디어 <한국웃음문화학회>를 발족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이 학회는 서대석, 조동일, 김응래를 비롯한 학계의 연구자와 유명 연극인과 개그맨 등 방송·공연계 인사들이 뜻을 한데 모은 것으로, 웃음과 관련된 설화 자료를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접목하여 응용함으로써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비문학연구가 학술논저 안에 갇혀있지 않고 현재적 삶을 풍요롭

3) 황루시, 「공동체 문화와 공동체 문학-놀이 및 의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김현주, 「호랑이 소재 민담과 민화의 유형분류와 무의식 분석」,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김현선, 「음악과 구비문학 그리고 공동체」,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4)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5) 서대석, 「한국 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4; 김정희, 「신불출의 문예 활동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12, 국문학회, 2004.

게 하기 위한 실천의 장으로 뛰어 들었다는 점에서 이 학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비문학의 연구대상을 넓힌 또 다른 성과로, 장유정과 배연형의 박사학위 논문을 주목할 수 있다.⁶⁾ 유성기 음반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대중가요를 고찰한 장유정은, 문학적 분석을 넘어서 ‘문화연구’를 지향하였다. 새로운 연구자료를 발굴하였다는 점과 문화연구로 연구의 시야를 넓혔다는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 유행하였을 민요나 잡가 등 전통적 시가 갈래와 대중가요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점은, 문화학자 이전에 고전문학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무언가를 놓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배연형은 판소리 음반의 내용과 판소리 창본의 내용을 면밀하게 대조하는 실증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판소리 광대들끼리 소통되는 토착적 용어인 ‘소리책’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창본을 대신하여 ‘판소리 소리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소리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문학 연구에서 더 나아간 점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연구시각의 확대는 현대 구비전승의 생성과 유통에 대한 관심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구비문학의 본질적 속성을 구비문학이 생성되고 유통되는 공동체와 관련지은 논의가 이루어졌다.⁷⁾ 이정복은 현대 인터넷 공동체의 사이버 문학이 지니는 구비문학적 가치를 논하였다. 또한 심우장은 구비설화가 네트워크 미디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 정보를 저장·보존하고 교류·탐색해나가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하고, 설화를 전승하는 공동체를 물리적 공간에 의한 생활공동체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결망이라는 관계의 개념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런 논의는 현대 구비전승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시각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대 구비설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천혜숙과 박종

6) 장유정, 일제강점기 시대 대중가요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2004.; 배연형, 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 박사 논문, 2004.

7) 이정복,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말과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심우장, 「구비설화의 미디어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성은 전통적인 구비문학 유산이 현대에 어떤 방식으로 계승되거나 변모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천혜숙은 현대사회에 새로 부상하는 설화 범주는 신화, 전설, 민담의 장르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로부터 일탈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현대의 이야기 문화가 사실과 경험의 추구와 순전한 허구와 년센스에 대한 지향이라는 양극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미래에도 여전히 구술이야기는 언더그라운드, 비하인드, 안티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⁸⁾ 박종성은, 현대 신화가 중세신화의 속성 중 하나를 이어받고 있다고 보았다. 즉, 현대 신화는 명예나 막대한 이윤 창출 또는 새로운 가치를 이루어 낸 인물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과 열광적 숭배를 보여준다는 것이다.⁹⁾

이런 구비문학 연구동향의 새로운 방향성을 판소리 관련 연구에서 보다 선명하게 감지하게 된다. 판소리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는 김대행은,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가함으로써 그 실상을 드러내는 설명적 이론이나 진단적 이론을 수립하는 '서술적 연구'를 넘어서서 '遂行的 연구'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수행적 연구란 구체적 실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적 이론과 어떤 문제를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처방적 연구를 위한 연구를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판소리 연구가 연행문학인 '판소리'의 보존과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⁰⁾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 데에 따른 결과인지는 모르나, 작년에 이루어진 판소리 분야 연구물에서는 (서술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전승되어 오는 판소리의 문학적 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대신 판소리 창작자나 연행 상황에 대한 고찰¹¹⁾ 그리고 창작 판소리의 존재양상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¹²⁾ 이는 판소리를 현대적인 '공연' 예술로

8) 천혜숙, 「설화의 범주와 갈래, 그 미래적 전망」,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9) 박종성, 「『현대신화』의 행방을 찾아서」,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10) 김대행, 「판소리의 발전 전망과 구도」,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11) 판소리 창작자에 대한 연구논문의 목록은 뒤에서 소개할 것이다.

12) 유영대, 「20세기 창작판소리의 존재양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 김기형, 「창작판소리의 사적전개와 요청적 과제」,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 이규호, 「창작판소리의 음악 짜임새-2001년~2003년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 김현주, 「창작 판소리 사설의 직조방식」,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서 계승·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판소리와 창극의 관련성을 고찰한 정충권의 논의는 전통적인 판소리 양식이 창극이라는 근대 공연물 속에 수용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¹³⁾

구비설화를 현대적으로 가공하여 활용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화콘텐츠화 사업과 연계된 것들이 대표적인데 여기에서는 문학치료학적 관심을 보여준 전영숙과 서은아의 연구를 먼저 주목해본다.¹⁴⁾ 이 연구들은 화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이야기의 변이를 세밀히 분석함으로써, 구비설화를 인간의 심리상태를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구비설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그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본다. 다만 박사논문으로서 마땅히 도달해야 하는 구비설화 텍스트에 대한 문학적 이해와 분석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남아 있다.

앞에서 김열규가 지적한 바 있는, 교포들의 민속 문화와 공동체성을 한국 민속학의 중요한 과제로 포괄한 연구도 역시 이루어졌다. 우선 북한의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그것이다. 연구 자료의 수집에 상당한 애로가 따랐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출간된 문헌자료나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여 얻은 구술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본격적인 연구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채록한 구비자료가 마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구비문학에 대한 관심은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 소중한 연구임에 틀림없는데, 아직은 연구의 수준이 미흡하게 보인다. 질과 양에 걸친 연구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할 터이다.¹⁵⁾ 아울러 연변이나 조선족의 구비문학에까지 연구자의 관심이 넓어지고 있다.¹⁶⁾ 그런가 하면, 판

- 13) 정충권, 「판소리와 창극의 양식적 차이점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정충권, 「초기 唱劇의 공연 형태와 위상」,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4.
 14) 전영숙, <바리공주>를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및 그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4 ;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부부갈등 연구」, 제이앤씨, 2005.
 15) 정병현, 「남북한 극예술의 판소리 수용과 창극의 진로」,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 이복규, 「분단 이후 북한의 민간신앙과 현대판 속담의 일단: 최근의 탈북자들이 구술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 숙명여대 박사 논문, 2005 ; 한정미, 「북한의 설화인식과 전설의 도구화」, 『민속학연구』 15, 국립민속박물관, 2004.

소리 사설이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 이는 모두 국제화 시대에 필히 주목해야 할 연구영역임에 틀림없다.¹⁷⁾

3. 일반론, 작품론

조희웅은 고려시대의 구비문학사를 재구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를 보였다. 설화, 민요, 무가, 민속극에 이르기까지 갈래별로 다양한 문헌 자료에 기대어 고려 시대의 구비문학을 재구해보고자 하였는데, 기대와는 달리 패관문학 자료에서조차 구비설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악장 가사나 악학궤범, 시용향약보 같은 문헌자료를 통해서 당시의 민요나 무가의 성격을 짐작해보는 수준에 만족해야 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제한적인 문헌자료에 기대어 문학사의 대부분을 추론에 의존해서 기술한 까닭에 입체적인 구비문학사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을 것이다.¹⁸⁾

쟁점의 부각이란 점에서 볼 때, 설화와 소설의 장르적 성격에 관해서 쟁점을 제기한 신동훈의 논의를 우선 주목할 만하다.¹⁹⁾ 신동훈은 조동일과 박희병이 제시한 설화와 소설의 갈래적 차별성에 대한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선행연구가 소설을 '서사의 완성'으로 봄으로써 설화를 '무언가가 결여된 서사'로 보는 편견에 빠져 둘 사이의 온전한 해명에 실패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설화를 그 자체 '완전한 서사'라고 보는 관점에서 설화와 소설의 변별지표를 탐색하였다. 즉 그 차이점은 갈등 구조와 주제 같은 '서사의 질'에 있다기보다 서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에 있는바, 설화가 서사(스토리)에 충실한 형상화를 지향하는데 비해 소설은 장면의 자족적 확장을 통해 '서사를 넘어서는 서사'를 지향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설이 발휘하는 남다른 감발력이나 현실반영의 리

16) 최동현, 「연변 지역 판소리의 전승 현황」,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김예풍, 조 선족 민요와 전승과 변용에 대한 음악적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 논문, 2004.

17) 박승배, 「판소리 사설의 英譯 사례와 문제점」,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18) 조희웅, 「고려시대의 구비문학사」, 『어문학논총』 23,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4.

19) 신동훈, 「설화와 소설의 장르적 본질 및 문학사적 위상」,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2004.

얼리티, 세계관적 대화의 양상 등은 모두 소설이 서사를 넘어서 서정과 교술, 극을 포용하는 새로운 문학적 관습을 이룩했다는 사실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구비문학의 위상을 언제나 기록문학의 하위에 두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설화는 그 자체로서는 온전한 서사도 독립적인 문학작품이 되지 못한 채 소설의 소재적 원천에 머물 뿐이라거나, 설화 그 자체는 불완전한 서사체이며 진화를 끝낸 완성된 형태의 서사는 소설이라는 학계의 공공연한 의식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이 논의는 설화를 온전한 서사로 소설은 서사를 뛰어넘는 양식으로 규정하여 선행연구자들이 자리매김한 설화와 소설의 위상을 차례로 격상(?)시켜줌으로써, 소설을 모든 형태의 문학양식을 종합한 문학의 총아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행연구의 맹점을 지적하는 데에는 상당히 유효했지만, 설화와 소설의 차별성을 명확히 가르는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는 설득력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 서사를 넘어서 서정과 교술, 극을 포용하는 양식으로 구비문학 갈래인 판소리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판소리라는 연행 장르와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기록문학 양식의 차별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학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조현설은, 신화와 寓言 양식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선보였다.²⁰⁾ 그는 동아시아 우언의 전통이 고대 신화적 사유방식을 이은 것임을 치밀하게 논증하면서, '신화와 우언 양식에는 상징과 알레고리, 원시사회와 고대사회, 대칭성 사회와 비대칭성 사회의 차이만큼이나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고대 제국의 등장 이후 발생한 동아시아 우언은 그 인문정신을 통해서 신화를 부정하면서도 신화의 세계관이나 담화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우언이 역설적 지혜의 담론이라면 신화는 실천적 지혜의 담론이라는 점에서 우언과 신화가 '지혜'라는 고리를 통해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화와 우언의 양식이 공유하는 문학적 담화양식에 주목한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이지만, 질의응답의 문답법이 신화나 우언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종주의 '소금장수'라는 인물형에 대한 연구 역시 상당히 주목할 만한

20) 조현설, 「지혜, 신화와 우언을 잇는 고리」,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논의이다.²¹⁾ 세계적으로 알려진 트릭스터형 인물과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관한 관심을 표하면서, 소금장수를 ‘단힌 성’을 열어 풀어주는 책략가로, 혼령의 소리를 듣고 어그러진 현실을 바로 잡는 영매적 존재로, 강자를 향한 악동적 책략과 비판의 주체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소금장수가 그 속성상 파괴자인 동시에 창조자 그리고 책략가이면서 영매적 존재라는 두 개의 역설적 구조 혹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사실 소금장수의 본질적 속성은 떠돌아다니는 존재라는 점이다. 소금장수는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언제나 그곳의 이방인으로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소금장수는 지역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이야깃거리(사건)를 만들어주는 주체이며,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메신저이며, 새로운 이야기를 수집해가는 수집가인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인물형은 이런 점에서 모두 소금장수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봉이 김선달, 정만서, 정수동, 박문수 역시 소금장수형 인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금장수를 트릭스터 이전에 피가로적 인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구비설화에 담긴 우리의 전통적인 생태학적 자연관에 주목한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연구로 임재해의 논의가 있다.²²⁾ 동물 보은담을 분석한 그는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과 대조되는 동물의 보은행위를 조명하고, 이에 담긴 공생적 동물 인식과 생태학적 자연관에 주목하였다. 그는 인간이 동물을 구하고 자연을 살리면 살피지 않으면 동물을 죽이고 자연을 버리면 인간은 죽은 동물과 버려진 자연에 의해 망한다는 것이 설화에 일관되게 나타난 생태학적 자연관임을 지적하고, 인간중심적 관계를 버리고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이 공생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태학적 논리가 동물 보은담 속에 갈무리된 세계관적 인식의 핵심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 촉발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구비설화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적 삶에 밀착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도출해낸 점을 높이 살 만 하다.

문헌설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가운데, 현해경의 <어우야

21) 이종주, 「소금장수 설화의 유형과 의미 : 세상의 소금, 가치 창조와 악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22) 임재해, 「동물 보은담에 갈무리된 공생적 동물인식과 생태학적 자연관」,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담>에 나타난 여성 삶의 형상화에 관한 연구 성과가 눈에 띈다.²³⁾ 유몽인이 남성이나 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여성의 행위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 본 서사 내용과 달리 평설에서는 남성중심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나타내었다는 지적이 매우 흥미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어우야담>에서는 중심서사 과제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이거나 탁월한 능력의 여성을 부각시키고 여성 삶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서사 내용과 평설 간의 시각 차이가 당대 현실과 지배적 윤리 이념간의 괴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사정은, 구비설화를 구연할 때 화자가 구연을 마치면서 자신이 구연한 설화 자료의 서사적 주제와 상당히 동떨어진 소견을 덧붙이는 상황에 견주어서 생각해볼 만한 문제로 보인다.

4. 연행론(화자·청자론), 민속학적 접근

연행론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자론(청자론)에 해당하는 연구가 특히 활발히 이루어졌다. 먼저 강진옥은 동해안지역의 김복순 구연본 <바리공주>에 나타난 변이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성적 경험이 서사무가에 투영된 구체적 양상을 고찰하였다.²⁴⁾ 이는 서사무가가 불리게 되는 곳판이 본질적으로 여성들의 삶에 뿌리를 둔 문화임에 착목한 연구라고 하겠다. 한편 여성 화자가 구연한 설화를 고찰하여 여성화자와 남성화자의 설화가 지니는 변별점을 밝히고자 한 박상란의 연구를 주목하게 된다.²⁵⁾ 설화 화자론에 대한 논의가 침체된 가운데 제출된 논문이란 점에서 그 첫 번째 의의를 갖게 된다. 이제 구비문학의 변이양상과 여성적 체험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여성중심적 연구시각을 넘어서서 작가론을 위한 문학 일반이론의 정립에 기여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구비문학 연구는 창조자와

23) 현혜경, 「<어우야담(於野譚)>에 나타난 여성 삶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 『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24) 강진옥,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변이양상과 여성적 경험의 재현-동해안지역 김복순 구연본을 중심으로-」, 『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25) 박상란, 「여성화자 구연설화의 특징」,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작품 그리고 수용자가 동시에 관찰된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는바, 이는 구비문학 연구가 기록문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구비문학을 통해서 정립한 여성적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에 대한 일반 이론은,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을 연구하면서 작가의 성(gender)을 추측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원오는 서사무가에 수용된 민속적 사실을 고찰함으로써, 서사무가가 공연되는 민속문화적 환경 속에서 민속 문화의 요소를 수용하게 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²⁶⁾ 이는 판소리가 여타 갈래에서 다양한 소재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양상과 견줄 수 있음을 보이고, 서사무가는 신의 내력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속 문화적 의식을 규제하고 반성케 하는 민속법의 기능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서사무가를 신화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민속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함유한 문화재로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호는 호랑이 설화를 자료로 하여 아동이 만든 이야기와 구비설화와 의 상관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²⁷⁾ 이는 설화의 진화론적 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치밀하지 못한 논증과정으로 인해 상당한 반론의 여지를 안고 있지만, 설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시도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판소리 분야의 연구에서는 연행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두드러지는데,²⁸⁾ 특히 판소리 창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²⁹⁾ 신재효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이어졌으며,³⁰⁾ 각종 굿에 대한 연행론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
- 26) 최원오, 「한국 구비서사사에서 나타난 민속적 사실, 그 상상력의 층위와 지향점」,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27) 김기호, 「반쪽이 설화의 심리적 전이(轉移) 구조와 의미」, 『인문연구』 45,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김기호, 「아동의 이야기와 호랑이 설화의 내면화」,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28) 윤영옥, 「판소리에 나타난 시간 양상과 공연의 관련성 연구」,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 29) 채수정, 「명창 박록주의 소리세계-단가 '대관강산'과 '진국명산'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강윤경, 「박동진 명창의 생애와 예술활동」, 『개신어문연구』 21, 개신어문학회, 2004; 배연형, 「정정렬론」,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신은주, 「김추월의 음악활동과 소리 특징」,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이경엽, 「판소리 명창 김연수론」,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김기형, 「또랑광대의 성격과 현대적 변모」,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그런데 이런 연구물은 대부분 구비문학 텍스트보다는 연행성을 조명하는 데에 치중함으로써 문학연구보다는 민속학 쪽에 치우친 인상을 받게 된다.³⁰⁾

구비문학이 배제되고 전승되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 역시 상당히 두드러졌다. 특히 전설 형성의 근원이 된 증거물에 주목한 황인덕의 연구가 눈길을 끈다. 그는 장소성과 역사성이 시간의 축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설의 전승양상의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³¹⁾ 이 밖에도 특정 지역에서 전승되는 구비문학자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³²⁾ 이는 문학 텍스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지역성에 대한 조명에 강조점이 놓이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상당 부분 구비문학을 지역의 문화재로서 연구하는 민속학적 관심에 견인되고 있다. 텍스트의 분석보다 자료조사 보고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30) 김석배, 「김창환제 <심청가>에 끼친 신재효의 영향」,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최진형,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개작 지향(2)-두 가지 지향의 공존과 통합 양상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31) 홍태한, 「서울곳의 양상과 변화」,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최윤식, 「죽령 산신당 당신화 <다자구 할머니>와 죽령 산신제」,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이경엽, 「연행 및 전승맥락에서 본 셋김곳의 예술성과 연희성-진도셋김곳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 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장장식, 「구비담론으로 본 군자봉 성황제: 군자봉 성황당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박진태, 「김계 벽골제와 용설화 및 쌍룡놀이」, 『고전문학과 교육』 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김문태, 「전국신화와 축제문화의 원류-신화주인공의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손인애, 「사당패소리 방아타령 연구-서남해 도서지역의 남사당패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32) 황인덕, 「영월 '술샘(酒泉) 전설'의 장소성과 역사성」,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33) 신해진, 「고전문학과 지역성: 口傳 甄蓋 설화의 설화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41, 한국국문학회, 2004; 이동근, 「경산지역 설화의 분류와 특징」,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권도경, 「인천의 지역 신화 연구-설화의 신화적 성격 규명과 지역 신화의 재구성 가능성에 관한 시론-」, 『인천학연구』 3,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4; 이성주·이승철, 「동해안 어촌신화의 유형분석」, 『인문학연구』 8, 관동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이승철, 동해안 어촌신화 연구, 관동대 박사 논문, 2004; 강권용, 「태지를 통해 본 제주도 당신의 식성 갈등」, 『민속학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김월덕, 「순창군 금과면 모정리 들노래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강등학, 「자진아라리의 분포와 장르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강등학, 「영북지역 <논매는 소리>의 기초적 분석과 지역적 판도」,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이영식, 「장례요의 <회심곡>사설 수용양상-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고재환, 「속담에 나타난 제주인의 삶과 문화」, 『리토피아』 15, 리토피아, 2004.

5. 비교문학적 접근

최근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 동향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제간 비교문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의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중국 문학과의 비교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호랑이 설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⁴⁾

비교문학적 접근은 자국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한 연구 시각이다. 연구자는 비교문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보편성을 끌어와서 자신이 수립한 가설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타국의 문학 작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여서 자국 문학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구명해낼 수도 있다. 그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둘 것인가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달린 것이겠지만, 그런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니게 된 소이연과 그것이 지니는 학문적 의의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수반될 때에 비로소 비교문학연구의 가치와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도깨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은혜의 대장장이 신화에 대한 재구 노력이 무척 흥미롭게 보인다.³⁵⁾ 이 연구는 비교문학적 연구를 통해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세계 보편적인 모티프를 추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장장이 신화를 재구하고자 하였다. 즉, 두두리 도깨비와 석탈해로부터 출발하여 일본과 중국의 신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장장

- 34) 왕분영, 「中·韓 호랑이 설화 비교 연구」, 『어문학교육』 29, 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 이신성, 「한·중 감호설화 비교 연구」, 『어문학교육』 29, 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 정경주, 「한·중 고대 산신설화 비교 연구 : <三國遺事>와 <太平廣記> 소재 설화를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29, 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 千斗鉉, 「한·중 설화연구의 전망-한중민간고사연구현상여전망-」, 『어문학교육』 29, 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 손지봉, 「한·중 과거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万建中, 「中·韓 민간설화 중 금기 모티브에 관한 문화적 해석」, 『어문학교육』 29, 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 박기용, 「한·중 창세신화 비교 연구」, 『두류국어교육』 5, 두류국어교육학회, 2004 ; 강등학·김영운·김예풍, 「한·중 논농사요의 기초적 문제 비교연구(1) : 존재양상과 문학적 상황-중국 호북성(湖北省)과 안휘성(安徽省)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 주옥과, 「한·중 속담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에 대한 비교 연구」, 『선청어문』 32,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2004.
- 35) 강은혜, 「대장장이 신화와 야장(冶匠) 체험-한·중·일 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2, 한중인문학회, 2004.

이 신의 변형상징을 두루 활용하여 두두리 도깨비를 대장장이 신으로 추론하였다. 도깨비가 말의 피를 무서워하는 모티프에 착목하여 대장장이와 말 토템의 역사를 회고하기도 하였는데, 그리스 신화 자료를 활용하여 도깨비와 말 토템의 관련성까지 제기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세계 각국의 자료를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번갈아 활용하면서 추론 위에 추론을 덧입히는 방식을 사용하는 데에서 논리적 허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말이 대장장이의 토템이었을 거라는 주장이 여전히 추론의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론에 기대어, 도깨비가 말 피를 무서워하는 것은 그가 대장장이 신이어서 말을 토템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란 추론을 또다시 이끌어내는 것은 砂上樓閣을 짓는 게 아닌가 한다. 도깨비는 본래 陰氣에 속한 존재이므로 도깨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陽氣가 가장성한 午時를 상징하는 말의 피를 뿌리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말의 피에 나타나는 붉은 색은 五行 가운데 불(火)인 '午'를 상징하는 색깔이며, 오방색 가운데 붉은색은 가장 강력한 벽사의 색깔이기도 하다. 이는 부적의 색이 붉은 색인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동아시아 자료를 통한 비교문화적 접근은 특히 구비서사시 또는 신화 연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³⁶⁾ 김현선은, <바리공주>를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전제로 저승 또는 이계를 여행하는 공통점을 보이는 <벼들도령>, <니산샤만신가>, <이자나기사이몬> 등과 비교하여, 세 나라에서 저승여행과 여성의 巫祖 기원을 해명하는 신화가 공통적으로 전승되는 것을 확인하였다.³⁷⁾ 비교문화적 접근은 자국 문학작품의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효용도 지니고 있는바, 최원오는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영혼관을 비교하는 작업과, 티베트의 영웅서사시인 <게사르>를 고찰하여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를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³⁸⁾ 그는 우리나라 구비서사시에 담긴 영혼관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36) 강제철, 「동양의 설화체통제도와 정치적 목적」,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이정숙,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의 정치와 신화」, 『기호학연구』 15, 한국기호학회, 2004; 송정화, 「여성신화 연구사 개관 및 동아시아 여성신화의 전망」, 『기호학연구』 15, 한국기호학회, 2004.

37) 김현선, 「세계의 여성신화 :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연구」, 『종교와 문화』 10,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4.

死者의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피나 살을 사자의 영혼 소생과 연결시켜 인식하고 있어서 다분히 육체를 중요시하는 영혼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이와 더불어 영혼관에는 사회적 가치가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구비서사시가 무속 의례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주목할 때, 구비서사시에 담긴 영혼관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적절한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또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자료가 모두 샤머니즘의 영향 속에서 생성된 자료라는 점에서 연구 자료 선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민속극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 연구도 다각도로 이루어졌으며,³⁹⁾ 그 밖에 유럽지역의 속담과의 비교 연구가 새롭게 시도되었다.⁴⁰⁾

6. 현대사회와 구비문학

구비문학 자료의 현대적 가공과 실용적 활용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무속신화 자료를 현대적인 독서물로 가공한 신동흔과 최원오의 작업을 비롯하여⁴¹⁾ 판소리 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심한 김기형의 연구⁴²⁾와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전략을 연구한 최혜진의 시도가 주목된다.⁴³⁾ 또한 판소리 사전 편찬 사업을 비롯하

38) 최원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영혼관 비교」, 『민속학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 최원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티베트의 영웅서사시 <게사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39) 윤광봉, 「중세 동아시아의 괴뢰회 양상-천민계층과 관련하여-」,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박진태, 「한국과 티베트의 탈춤의 비교-기예와의 관련 양상과 세속화 현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1, 우리말학회, 2004 ; 송재일, 「마당극 <땅풀이>와 호주 원주민극 <브랜 누 대>의 탈식민성 고찰」, 『어문연구』 45, 어문연구학회, 2004 ; 박전열, 「일본 지방 인형극의 연희방식 변천에 관한 고찰」, 『민속학연구』 15, 국립민속박물관, 2004 ; 이도요시히데, 「산대(山臺)와 야마가타(山形)의 비교연구」,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40) 강성영,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동물속담에 있어서 은유 추론 관계 비교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18,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4 ; 엄태현, 「투마니아어와 한국어 속담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 『동유럽연구』 12, 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소, 2004.

41) 신동흔, 「살아 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4 ; 최원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한국 신화」, 여름언덕, 2004.

42) 김기형, 「판소리의 교육현황과 발전방안」,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여⁴³⁾ 구비자료의 디지털화 작업과 다양한 방식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는 강등학을 비롯한 민요 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⁴⁴⁾

7. 마무리

구비문학은 그 본질적 속성상, 다양한 연구영역의 개척과 다채로운 연구 시각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고전문학에서 현대 문학으로 통시적인 연구 대상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적으로는 전파 문학이나 사이버 문학으로 연구의 시각과 관심을 넓히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구비문학 자료를 현대적인 문화상품으로 가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설화를 심리치료나 교육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연행론적인 관심을 통해서 전통적 구비문학을 현대적 공연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서 연구 시야를 확대함으로써, 자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망하기도 하고 인접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정립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時宜適切한 연구방향을 정립해가려는 다양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연구비의 지원에 따라 학문 연구의 방향성이

-
- 43) 최혜진, 「관소리 대중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전략」, 『비교민속학』 27, 비교민속학회, 2004.
 44) 김동건·김진혜·최운호, 「관소리 자료 전산화 및 관소리 사전 편찬을 위한 통합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관소리연구』 17, 관소리학회, 2004.
 45) 강등학, 「민요 데이터의 정보처리 구도와 자료분류 표준화 방안」,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 김진순, 「문화산업과 민요콘텐츠-문화원형산업 <한국의 소리은행> 계발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이윤선, 강강술래의 디지털 콘텐츠화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목포대 박사 논문, 2004 ; 김진순, 한국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 박사 논문, 2005 ; 홍미희, 「전통 민요의 영상화에 관한 고찰-농사노래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 정우택, 「정선아라리의 조사 현황과 데이터 정리 및 활용 전망」,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 김혜정, 「민요의 정보화와 <사이버 한국민요대관>의 음악학적 활용 방안」,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 이윤선, 「디지털 시대의 강강술래에 대한 민속학적 小考」,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좌우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진지한 학문적 탐구에 정열을 쏟기보다 자본의 흐름과 시류에 쉽게 몸을 맡기는 연구자를 양산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한편 설화와 무가, 민요 분야에서 주로 다룬 연구대상이 <선녀와 나무꾼 설화> <열녀설화>, <계모설화>, <호랑이 설화>, <바리공주>, <문전본풀이>, <시집살이요> 등 한정된 자료에 집중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⁶⁾ 새로운 구비문학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하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익숙한 연구대상을 색다르게 가공하는 안이한 작업으로 쏠리고 있는 연구 경향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판소리 연구가 실증되고 음악성을 비롯한 연행성에만 주목하는 작금의 연구 풍토가 어찌면 불가항력적인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연구영역과 연구시각의 전환 그리고 확대가 곧 전통적인 구비문학 자료와 문학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라는 '서술적' 연구방법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학문 연구의 발전은 종적인 지속성을 바탕으로 횡적인 팽창을 가져올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6) 정준식, 「열녀설화의 장르확산과 열녀 이미지의 변모과정」,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김대숙,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민담적 성격과 주제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김현선, 「〈萬日囊箱〉설화의 구조적 변형과 의의」, 『백록어문』 18·19, 백록어문학회, 2004; 김현선, 「제주도 <손 없는 색시>의 각편 비교와 여성 심리적 해석」, 『탐라문화』 25,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4; 이정재, 「바리공주 이본연구의 허와 실: 이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4; 김재용, 「문전본풀이」의 무속 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서영숙, 「남편-아내형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현모, 『한국 설화의 전승 양상과 소설적 변용』, 역락, 2004.
 ———, 『장수설화의 구조와 의미』, 역락, 2004.
 권태호, 『중국 운남 소수민족의 제의와 신화』, 민속원, 2004.
 ———,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김사엽, 『김사엽전집』, 박이정, 2004.
 김선자, 『중국신화이야기』, 아카넷, 2004.
 김선봉·김경남·김인희, 『한국과 중국의 민간신앙』, 보고서, 2004.
 김영일, 『한국무속과 신화의 연구』, 세종, 2005.
 김영일·최재남, 『한국의 민속과 전통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4.
 김용길, 『한자로 풀어보는 한국 고대신화』, 정신세계사, 2004.
 김용만·송진희, 『(세상의 탄생)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청술, 2004.
 김의숙·이창식, 『구비문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사상사, 2004.
 김재용·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동북아 신화의 뿌리 <천궁대전> 과 우리 신화』, 동아시아, 2004.
 김종대, 『도깨비를 둘러싼 민간신앙과 설화』, 인디북, 2004.
 ———, 『한국의 성 신앙』, 인디북, 2004.
 김종서, 『(신화로 날조되어 온) 신시·단군조선사 연구』, 한국학연구원, 2004.
 김진영 외, 『판소리의 비평적 이해』, 민속원, 2004.
 김현룡, 『(옛 고전에서 전해오는) 조선왕조 500년 괴담』, 자유문학사, 2004.
 나경수, 『마한신화: 남도문화의 서막』, 한얼미디어, 2004.
 문순덕, 『제주여성 속담으로 바라본 통과의례』, 제주대출판부, 2004.
 박관수, 『어러리의 이해』, 민속원, 2004.
 박동준, 『육도를 넘나 본 수미산: 신화로 본 불국토 세계』, 한양대출판부, 2004.
 박진태 외, 『한국불교학연구총서111, 三國遺事와 一然』, 불함문화사, 2004.
 서은아, 『나무꾼과 선녀에 나타난 부부갈등 연구』, 제이앤씨, 2005.
 손종흠, 『(다시 읽는) 한국 신화』, 휴먼앤북스, 2004.
 신동훈, 『살아 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4.
 안경식, 『(구비설화에 나타난) 한국 전통교육』, 문음사, 2004.
 이강엽, 『신화』, 연세대출판부, 2004.
 이동근, 『경산지방의 설화문학연구』,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이승철,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 민속원, 2004.
- 이인택, 『신화, 문화 그리고 사상』, 울산대출판부, 2004.
- 임명진, 『판소리의 공연예술적 특성』, 민속원, 2004.
- 서대석, 『한국 구비문학에 수용된 계담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4.
- 송호정, 『단군-만들어진 신화』, 산처럼, 2004.
- 최원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한국 신화』, 여름언덕, 2004.
- 최은미, 『가면극 대사 연구-양주별산대놀이와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충북대, 2005.
- 최인학, 『바가지에 얽힌 생활문화』, 민속원, 2004.
- 한국전통음악학회, 『동부민요의 예술세계』, 갑우문화원, 2004.
- 홍태한, 『서울 진오기굿』, 민속원, 2004.

2. 자료집

- 강원대, 『강원의 설화 1·2』, 북스힐, 2005.
- 경기도·군포시, 『군포시 전설, 설화, 민담 조사』, 경기도, 2004.
-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2004.
- 광진구, 『광진구의 설화』, 서울, 2004.
- 김진영, (실창) 『판소리 사설집』, 박이정, 2004.
- 김익두 외, 『전라북도 농악·민요·만가 : 전통문화예술의 정리』, 전라북도, 2004.
- 김기창·박미영, 『한국 구전 설화집 9 : 충남 청양편』, 민속원, 2004.
- 두창구, 『양양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4.
- 리동권, 『조선민요의 세계』, 민속원, 2004.
- 임석재, 『한국 구연민요 자료집』, 민속원, 2004.
- 최형근, 『서울의 무가』, 민속원, 2004.
- 충청북도, 『이야기 충북』, 2004.
- 하효길, 『풍어제 무가』, 민속원, 2004.
- 홍태한, 『한국의 무가』, 민속원, 2004.
- 한국민속박물관, 『석남 송석하-한국민속의 재미』, 2004.

3. 학회지 수록 논문

<구비문학 일반론, 설화>

- 강영순, 「동아시아 순환요류형 형식담의 우연적 소통 비교연구-〈야서혼〉 유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강재철, 「동양의 설화체록제도과 정치적 목적」,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 곽정식, 『한국 설화에서 본 여성 주체의 자각과 성장』, 『인문과학논총』 9,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 김기호, 「반쪽이 설화의 심리적 전이(轉移) 구조와 의미」, 『인문연구』 45,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 _____, 「아동의 이야기와 호랑이 설화의 내면화」,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 김대숙,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민담적 성격과 주제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37, 국어국문학회, 2004.
- 김열규, 「구술 문학과 공동체 : 새로운 문제제기」,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 김종대, 「한국 도깨비와 일본 요괴의 비교연구에 관한 시론」, 『민속학연구』 15, 국립민속박물관, 2004.
- 김현선, 「〈寓目囊箱〉 설화의 구조적 변형과 의의」, 『백록어문』 18·19, 백록어문학회, 2004.
- _____, 「제주도 <손 없는 색시>의 각편 비교와 여성 심리적 해석」, 『탐라문화』 25,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4.
- 김현주, 「호랑이 소재 민담과 민화의 유형분류와 무의식 분석」,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 김호동, 「삼국시대 동해안 지역 사원 창건연기설화의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2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4.
- 万建中, 「中·韓 민간설화 중 금기 모티브에 관한 문화적 해석」, 『어문학교육』 29, 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 박기용, 「논개 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
- 박상란, 「여성화자 구연설화의 특징」,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 방석중, 「단군설화의 역사비평적 해석 : 신관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0, 단군학회, 2004.
- 손지봉, 「한·중 과거설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 신동훈, 「설화와 소설의 장르적 본질 및 문학사적 위상」, 『국어국문학』 138, 국어

국문학회, 2004.

- 심수민, 「형제 설화의 유형과 의미」, 『국어교육연구』16,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2004.
- 신태수, 「〈桃花女·鼻荊郎〉說話의 構成原理와 對稱的 世界觀의 向方」,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 , 「〈三國遺事〉求法說話의 구성원리와 友道小說과의 관련성」, 『민족문화논총』 2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4.
- 신해진, 「고전문학과 지역성 : 口傳 甄萱설화의 설화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 심우장, 「구비설화의 미디어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 안이영노·김광옥, 「입으로 새기는 현대적 축제-구비문학과 지역축제의 상생을 위하여-」,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 왕분영, 「中·韓 호랑이설화 비교연구」, 『어문학교육』 29, 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 이동근, 「경산지역 설화의 분류와 특징」,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 이신성, 「한·중 감호설화 비교연구」, 『어문학교육』 29, 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 이정복,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말과 구비문학」,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 이종주, 「소금장수 설화의 유형과 의미 : 세상의 소금 가치 창조의 악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5, 한국문학이론비평학회, 2004.
- 임재해, 「동물 보은담에 갈무리된 공생적 동물인식과 생태학적 자연관」,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 정경주, 「한·중 고대 산신설화 비교연구 : 『三國遺事』와 『太平廣記』 소재 설화를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29, 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 정준식, 「열녀설화의 장르확산과 열녀 이미지의 변모과정」,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 조동일, 「구비문학의 미래, 무엇이 문제인가」,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 조미라·윤의섭, 「구비문학의 애니메이션 활용에 관한 방안과 전망」,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 조희웅, 「고려시대의 구비문학사」, 『어문학논총』 23,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4.
- 千斗鉉, 「한·중 설화연구의 전망-한중민간고사연구현상여전망-」, 『어문학교육』 29, 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 천혜숙, 「설화의 범주와 갈래, 그 미래적 전망」,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 최인학, 「설화와 경제」, 『비교민속학』 27, 비교민속학회, 2004.

- 한정미, 「북한의 설화인식과 전설의 도구화」, 『민속학연구』 15, 국립민속박물관, 2004.
- 황루시, 「공동체 문화와 공동체 문학 놀이 및 의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황인덕, 「영월 '술샘(酒泉) 전설'의 장소성과 역사성」,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황인덕, 「매죽헌 성삼문 설화 고찰」, 『어문연구』 45, 어문연구학회, 2004.
- 현혜경, 「<어우야담(於于野譚)>에 나타난 여성 삶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 『고전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신화, 무가, 구비서사사>

- 강권용, 「돼지를 통해 본 제주도 당신의 식성 갈등」, 『민속학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 강진욱,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변이양상과 여성적 경험의 제한 동해안지역 김복순 구연본을 중심으로-」, 『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 강은혜, 「대장장이 신화와 야장(冶匠) 체험」, 『한중인문학연구』 12, 한중인문학학회, 2004.
- 권도경, 「인천의 지역 신화 연구 : 설화의 신화적 성격 규명과 지역 신화의 재구성 가능성에 관한 시론」, 『인천학연구』 3,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2004.
- 김문태, 「건국신화와 축제문화의 원류-신화주인공의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4, 한민족어문학학회, 2004.
- 김선풍, 「강원도의 洞祭의 인신 유형」, 『중앙민속학』 10, 중앙대 한국민속학연구소, 2004.
- 김현선, 「세계의 여신신화 :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연구」, 『종교와 문화』 10,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4.
- 김재용, 「<문진본풀이>의 무속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 노성환, 「해와 달을 쏘는 신화의 의례에 관한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노영근, 「신화에 나타난 남편 탐색 모티프」, 『어문학논총』 23,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4.
- 박기용, 「한·중 창세신화 비교 연구」, 『두류국어교육』 5, 두류국어교육학회, 2004.
- 박대복, 「건국신화의 天관님과 巫관님」, 『어문연구』 1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박종성, 「'현대신화'의 행방을 찾아서」,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송정화, 「여성신화 연구사 개관 및 동아시아 여성신화의 전망」, 『기호학연구』 15, 한국기호학회, 2004.
- 오세경, 「상징과 신화 : 신화 형성화와 의미화의 상징적 논리」, 『시학과언어학』 7, 시학과언어학회, 2004.
- 이정엽, 「연행 및 전승 맥락에서 본 셋김굿의 예술성과 연희성 - 진도셋김굿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이명숙, 「서울지역 무구의 신화·의례적 기능 연구 : 부채·방울·대신칼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4.
- 이성주·이승철, 「동해안 어촌신화의 유형분석」, 『인문학연구』 8, 관동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 이정숙,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의 정치와 신화」, 『기호학연구』 15, 한국기호학회, 2004.
- 이정재, 「바리공주 이본연구의 허와 실 : 이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 『한국무속학』 8, 한국무속학회, 2004.
-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 _____, 「구비담론으로 본 군자봉 성황제 : 군자봉 성황당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 전관수, 「주몽신화에 나타난 탄생담의 의미 분석」, 『동악어문논집』 42,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 조현설, 「지혜, 신화와 우연을 잇는 고리」, 『고전문학연구』 2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 조현설, 「세 신화 세 현실」, 『겨레어문학』 33집, 겨레어문학회, 2004.
- 최문형, 「단군신화의 神개념과 ‘홍익인간’ 사상」, 『정신문화연구』 9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최운식, 「죽령 산신당 당신화 <다자구 할머니>와 죽령 산신제」,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 최원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영혼관 비교」, 『민속학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 _____,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이론 구축을 위한 사례 점검-티베트의 영웅서사시 <게사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_____, 「한국 구비서사시에서 나타난 민속적 사실, 그 상상력의 층위와 지향점」,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홍태한, 「진오기굿의 뜬대왕과 사재삼성거리 무가 연구」,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_____, 「서울극의 양상과 변화」,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황폐강, 「단군(檀君) 삼대(三代) 신화(神話)의 재조명(再照明)」, 『국어국문학』 138, 국어국문학회, 2004.

<판소리>

강윤정, 「박동진 명창의 생애와 예술활동」, 『개신어문연구』 21, 개신어문학회, 2004.
 김기형, 「판소리의 교육현황과 발전방안」,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_____, 「또랑광대의 성격과 현대적 변모」,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_____, 「창작판소리의 사적전개와 요청적 과제」,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김대행, 「판소리의 발전 전망과 구도」,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김동진·김진해·최운호, 「판소리 자료 전산화 및 판소리 사전 편찬을 위한 통합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김석배, 「김창환제 <심청가>에 끼친 신재효의 영향」,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김진영, 「<토끼전, 수궁가>의 인물형상」,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김현주, 「창작 판소리 사설의 직조방식」,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박승배, 「판소리 사설의 英譯 사례와 문제점」,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배연형, 「정정렬 론」,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유영대, 「20세기 창작판소리의 존재양상과 의미」,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윤영옥, 「판소리에 나타난 시간양상과 공연의 관련성 연구」,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이정엽, 「판소리 명창 김연수론」,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이대중, 「뽕덕어미 삽화의 더늠화 양상과 의미」,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이진원, 「박동실 증언 “창극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를 통해본 창극의 초기 양상」,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정병현, 「남북한 극예술의 판소리 수용과 창극의 진로」,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정충권, 「취모리 잡가와 판소리의 공통 특질」,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_____, 「초기 唱劇의 공연 형태와 위상」,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2004.
 _____, 「판소리와 창극의 양식적 차이점 고찰」,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채수정, 「명창 박목주의 소리세계-단가 “대관강산”과 “진국명산”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 최동현, 「연변 지역 판소리의 전승 현황」, 『판소리연구』 17, 판소리학회, 2004.
- 최진형,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개작 지향(2)-두 가지 지향의 공존과 통합 양상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18, 판소리학회, 2004.
- 최혜진,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전략」, 『비교민속학』 27, 비교민속학회, 2004.

<민요>

- 강동학, 「자진아라리의 분포와 장르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39, 한국민속학회, 2004.
- , 「경북지역 <논매는소리>의 기초적 분석과 지역적 판도」,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 , 「민요 데이터의 정보처리 구도와 자료분류 표준화 방안」,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 강동학·김영운·김예풍, 「한·중 농농사요의 기초적 문제 비교연구(1) : 존재양상과 문학적 상황-중국 호북성(湖北省)과 안휘성(安徽省)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 권오경, 「시조의 민요화 攷」, 『외대논총』 28, 부산외국어대, 2004.
- 김영운·강동학·김예풍, 「한·중 농농사요의 기초적 문제 비교 연구(2) : 음악적 상황-중국 안휘성과 호북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 김영운, 「20世紀 韓國民謠 變化의 한 樣相 -〈開城難逢歌〉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 김월덕, 「순창군 금과면 모정리 들노래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김진순, 「문화산업과 민요콘텐츠-문화원형사업 <한국의 소리은행> 개발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김현선, 「음악과 구비문학 그리고 공동체」, 『구비문학연구』 1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김혜정, 「민요의 정보화와 <사이버 한국민요대관>의 음악학적 활용 방안」,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 나승만, 「일제하 소안도 민족해방운동가의 수용과 전승」,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 류종목, 「민요에 표현된 한국인의 생사관」,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 서영숙, 「'납편-아내'형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 손인에, 「사당패소리 방이타령 연구-서남해 도서지역의 납사당패소리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 이영식, 「장례요의 <회심곡> 시설 수용 양상-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 이옥희, 「등당에타령의 존재양상과 문화적 위상」,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 이운선, 「디지털 시대의 강강술래에 대한 민속학적 小考」, 『한국민요학』 15, 한국민요학회, 2004.
- 이창식, 「민요의 정치시학」,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 정우택, 「정선아라리의 조사 현황과 데이터 정리 및 활용 전망」,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 최자운, 「<성주풀이>의 서사민요(敍事民謠)적 성격」,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 홍미희, 「전통 민요의 영상화에 관한 고찰-농사노래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민속극>

- 박진열, 「일본 지방 인형극의 연희방식 변천에 관한 고찰」, 『민속학연구』 15, 국립민속박물관, 2004.
- 박진태, 「한국과 티베트의 탈춤의 비교-기예와의 관련 양상과 세속화 현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1, 우리말글학회, 2004.
- , 「사또놀이에 나타난 정치의식」,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 , 「김계 벽골제와 용설화 및 쌍룡놀이」, 『고전문학과 교육』 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 송제일, 「마당극<땅풀이>와 호주 원주민극 <브랜 누 대>의 탈식민성 고찰」, 『어문연구』 45, 어문연구학회, 2004.
- 윤광봉, 「중세 동아시아의 괴뢰회 양상-천민계층과 관련하여-」,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이토 요시히데, 「산대(山臺)와 야마가타(山形)의 비교연구」,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 정형호, 「가면극과 정치-전승집단과 연희 내용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 허용호, 「'연행인형'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의 인형인식 양상」, 『구비문학연

구』 19, 한국구비문학회, 2004.

<재담, 속담 수수께끼>

- 김정희, 「신불출의 문예활동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12, 국문학회, 2004.
- 강성영,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동물속담에 있어서 은유추론 관계 비교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18,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4.
- 고재환, 「속담에 나타난 제주인의 삶과 문화」, 『리토피아』 15, 리토피아, 2004.
- 김정섭, 「수수께끼와 수수께끼담의 관련 양상」,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 신현덕, 「한국 수수께끼에서 하늘과 관련된 은유 사례 연구 : 수수께끼에 나타나는 단어 중 하늘에 포함된 의미를 중심으로」, 『논문집』 6, 한국산업기술대, 2004.
- _____, 「한국 수수께끼에 등장하는 닭을 통해 본 사회 현상」, 『논문집』 6, 한국산업기술대, 2004.
- 임태현, 「루마니아어와 한국어 속담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 『동유럽연구』 12, 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2004.
- 이복규, 「분단 이후 북한의 민간신앙과 현대판 속담의 일단 : 최근의 탈북자들이 구술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 주옥과, 「한·중 속담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에 대한 비교 연구」, 『선청어문』 32,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2004.

<박사 논문>

- 김예풍, 「조선족 민요와 전승과 변용에 대한 음악적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 논문, 2004.
- 김진순, 「한국 민요의 정서적 기능과 문화콘텐츠」, 한림대 박사 논문, 2005.
- 박영산, 「<춘향가>와 <네자키신주(會根崎心中)>의 비교연구」, 고려대 (비교문학) 박사 논문, 2004.
- 배연형, 「판소리 소리책 연구」, 동국대 박사 논문, 2004.
- 이승철,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 관동대 박사 논문, 2004.
- 장유정, 「일제강점기 시대 대중가요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2004.
- 전영숙, 「<바리공주>를 활용한 문학치료의 실제 및 그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건국대 박사 논문, 2004.
- 정소영, 「한국 전래 동화에 나타난 설화 수용 양상 연구」, 조선대 박사 논문, 2004.
-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양상 연구」, 숙명여대 박사 논문, 2005.
- 田阪正則, 「일본고전문학에 나타난 「蜃(뱀)」 연구 : 한일 설화문학의 비교연구를

위한 시론, 고려대 박사 논문, 2004.

<석사 논문>

고 훈, 「설화의 띠 동물상징 연구 :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 논문, 2005.

김두산, 「김덕령 설화 연구 : 설화에 나타난 전승양상을 중심으로」, 호남대 석사 논문, 2005.

김소정, 「재생설화 연구 : 경남지역 전설·민담을 중심으로」, 경상대 석사 논문, 2004.

김 연, 「창작 판소리 연구 :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전북대 음악학 석사 논문, 2004.

김윤희,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현대극 수용양상 연구」, 경희대 석사 논문, 2004.

박정용, 「설화의 전래동화 개작 양상과 문제점 연구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콩쥐팥쥐>, <아기장수 설화>를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 논문, 2005.

서일녕, 「<옥단춘전>의 민요 이행 양상 연구」, 동아대 석사 논문, 2004.

심지영, 「영어와 한국어 속담에 나타난 여성 은유방식의 비교연구」, 부경대(영문학) 석사 논문, 2005.

안성준, 「사천지방 민요의 전승양상과 특성 연구」, 동아대 석사 논문, 2004.

오혜나, 「여성지혜담 연구」, 단국대 석사 논문, 2004.

은현정, 「현대 공포 담화의 존재 양상 및 문화적 위상 연구」, 건국대 석사 논문, 2004.

이경덕, 「한국 샤머니즘의 신화 연구」, 한양대(사회인류학) 석사 논문, 2005.

이선아, 「몽골의 영웅서사시의 전개와 변모 : 신화에서 인터넷게임까지」, 고려대(비교문학) 석사 논문, 2004.

이유진, 「구비문학자료에 나타난 미륵 설화의 유형과 특징」, 한국외국어대 석사 논문, 2004.

이윤희, 「한국 설화의 버드나무 상징성 연구」, 한양대 석사 논문, 2004.

이현주, 「신라의 건국신화와 동물상징」, 성균관대(한국사) 석사 논문, 2004.

장혜숙, 「우리 속담에 나타난 성차별 문화와 여성의 모습」, 경원대 석사 논문, 2004.

채수정, 「박록주 <심청가>연구」, 경희대 석사 논문, 2004.

최용희, 「가면극의 비언어적 상징과 의미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 논문, 2005.

최원석, 「춘천 무가의 연구」, 강원대 석사 논문, 2004.